

청년층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전망이 결혼, 출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인순, 김영택*

저출산극복을 위한 3차 5개년계획의 중점정책인 미혼청년층의 취업정책의 실효성 전망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정책부문에 대한 고려라는 관점에서, 취업 외에 청년들의 자신의 생활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자아존중감, 그리고 폐자부활가능성 등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평가가 미혼청년의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19차 노동패널 15세-34세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했으며, 다루는 주제가 결혼과 출산이므로 총 3225명 중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1,314사례(40.78%)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종속변수는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이며, 독립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의 인구학적 변인과 취업여부, 부모와 동거여부, 경제적 독립여부의 경제적 요인,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변수, 폐자부활가능성, 공정성, 한국이 살만한 곳인가 등에 대한 진단을 담고 있는 한국사회전망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분석은 spss 21버전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이미 연관이 알려져 있는 취업여부와 경제적 독립여부의 경제적 요인외에 남녀 모두 자아존중감으로 표현되는 즉 결혼을 해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결혼과 출산을 병행하려는 자아존중감변수와 폐자부활가능성, 정당성, 청년에게 한국사회가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는 한국사회전망변수가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수준의 격차 증가로 미래 생활보장성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폐자가 되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활할 수 있는 포용적인 안전망, 부모세대의 지원이 없어도 개인이 노력하면 보상이 가능한 공정성들이 작동하여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놓여진, 난제지만, 결국 장기적인 해결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청년 결혼자신감 출산자신감 한국사회전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는 글

저출산에 100조를 쏟았지만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로 확정되었다는 통계청의 “2016년 출생 통계확정치”가 발표되었다.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2005년도에 와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 저출산고령화사회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현재 3차 계획기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출산율에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저출산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업방향설정이 요구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은 소요예산이 막대한데 비해 효과는 매우 더디게 나타난다는 사업특성으로 인해, 방향설정의 타당성에 큰 방점이 주어지는 사업이 되고 있다. 진행 중인 3차계획의 방향설정이 지난 1차, 2차 계획에서 상정했던 원인과 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현재 3차계획의 정책방향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혼, 만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정책으로 하면서, 그간 1차 계획의 주원인으로 보았던 보육지원정책, 그리고 2차 계획의 주원인으로 보았던 일·가정양립정책도 포함시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3차 계획의 진단에 대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은 저출산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보육환경을 조성하지도 않고 일자리, 주거 등 만혼, 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는 견해(김남희, 2017)도 있으나, 혼인연령 및 미혼율의 증가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혼인경향의 변화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상립, 2013; Koh & Auh, 2013; 윤희식, 2016, 정준영, 2016)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사회는 이웃,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기에 동거나 사실혼 비율이 낮아 출산이벤트는 법적 결혼식을 거친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¹⁾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결혼환경조성을 위한 취업과 주거문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2012년 1.29, 2015년 1.23인 반면 유배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61, 2015년 1.75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20년도까지의 목표로 설정한 1.6이상이라는 점에서, 미혼이 출산율을 낮추는 이유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미혼인구가 보다 더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또 만혼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혼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결혼연령에 따른 평균자녀수가 25세 미만 2.03명, 35세 이상 0.84명이라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16), 현재보다 혼인연령이 상승한다면 의료기술발달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합법적 결혼을 중시하여 결혼식 이후 출산이 이루어지는 문화, 합계출산율 중 기혼의 합계출산율은 1.5를 상회하며 35세 이상 만혼여성의 출산자녀수는 0.84명이라는 점에서 제3차 계획에서 비혼, 만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진단한 점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주요정책으로 청년취업과 주거문제해결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혼으로 연계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청년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첫째, 경제적측면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가구소득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장경섭, 2010; 이성용, 2006; 김두섭, 2007; 이인숙, 2005, 신윤정, 2008) 정책방향은 소

1) 혼인 외에 출생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5%에서 2010-2013년 기간동안 2.1%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2.0%, 2015년 1.9%로 우리나라의 혼외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수준을 맴돌고 있다(탁현우, 2017년 p 2016 통계청 2015 출생통계에서 인용)

득, 경제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을 지향하게 된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가치관의 변화 즉 가족·출산을 중시하던데서 개인의 욕구·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한다. 노동시장의 증가된 성평등수준과 가족 내 성역할분업의 성평등수준 간 불일치가 제도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배은경, 2010; 이민아, 2013; 황정미, 2005; 이재경 외 2005; 신경아, 2010). 가치관변화는 경제적 요인중심과 결혼관 변화 등 가치관 요인중심의 두 가지 입장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한국사회시스템에 대한 미래전망’ 즉 현재 우리사회의 재화분배구조 즉 학력, 학벌중심의 재화분배구조로 인해 한 개인의 출생에서 취업까지 극심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부모됨’, ‘부모노릇’에 수반되는 과도한 비용과 그 비용마련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안전망수준을 들 수 있다. 즉 청년세대가 우리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패했을 때 제기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사회의 포용성, 재화획득의 접근성에 있어 사회적 물의 공정성 등 현재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지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 그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첫 취업이나 취업여부를 넘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전망이 주는 영향력도 결혼가능성이나 결혼결정에 영향을 발휘하는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고 본다.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개인 간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결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너머 자신들의 자식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에 대한 전망 역시 암울하게 보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현재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어떤 방식이든 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3차 5개년계획의 중점정책인 미혼청년층의 취업정책의 실효성 전망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할 정책부문에 대한 고려라는 관점에서, 취업 외에 청년들의 자신의 생활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자아존중감, 그리고 패자부활가능성 등 우리사회에 대한 전망평가가 미혼청소년의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분석에서 중요한 분석변수인 학력수준별, 그리고 결혼결정의 양 당사자들인 성별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취업과 같은 경제적요인, 그리고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1.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김중백, 2012). 결혼에 필요한 자원으로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결혼 당사자의 자본여력뿐 아니라 자녀뒤틀바라지를 자녀결혼비용부담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경제적자본 여력도 영향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김승권(2004)은 일찍부터 출산을 저하를 기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만혼과 독신의 증가를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조영태(2015)는 강력한 혼인지원정책으로 젊은이들이 혼인을 합리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주장하며 혼인지원정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과 같은 경제적여건을 제공하는 정책뿐 아니라 청년고용의 활성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및 임금격차해소와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다운·유계숙(2011)은 남편과 부인의 학력수준, 가구소득 등의 요인을 만혼의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결혼에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현우(2017)는 한국은 부부중심의 2인생계부양자모델이 아닌 남성중심의 1인생계부양자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결혼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여성들은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 자원을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사결혼문화가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경기침체로 남성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미혼과 만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혼의향에 결혼당사자의 상황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임선영·박주희, 2014). 박환보()는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교육비부담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저출산을 초래하고 저출산은 교육열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교육비를 상승시키는 교육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베커(Baker)는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을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그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획기적인 증가로 보면서, 국가 간 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남녀모두에게 상호이득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제도인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성역할규범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이해득실에서 이득(+)보다는 실(-)이 많이 되어, 만혼경향을 띠다가 중국에는 비혼을 택하게 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Baker, 1990). 베커의 결혼가설은 결혼에 대한 전망에 있어 남녀 간 성역할규범을 핵심적 설명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으로,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비대칭적으로 성역할규범의 조정 내지 재배치 필요성을 일찌감치 잘 지적해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기존의 공사영역 구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전의 성역할규범에 대한 조정 내지 재배치 욕구가 분출되고 있음에도 잘 바뀌지 않을 경우, 많은 젠더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 같은 역할규범의 재조정, 재배치를 생각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한쪽 성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한쪽 성의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평등의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그로인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성역할조정과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법이 제정되고(이재경: 2013, 차인순, 2014)

최근으로 올수록 양성평등실현에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직장문화 속에 성평등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해 제도활용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화가 부부, 가정중심이라기보다는 직장우선, 직장중심의 생활문화가 강하기에 어린자녀를 둔 젊은 기혼남성의 가정에서의 육아돌봄노동 기여율이 낮기에, 육아제도활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독박육아’가 예견되기에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후 부부가 가정중심의 생활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한, 여성의 결혼의향은 남성보다 낮아지는 젠더격차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은 취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 만혼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양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은 취업을 했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미취업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소영, 2017). 문선희(2012)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과 더불어 기대결혼연령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연령, 학력, 가구소득, 고용상태와 같은 외적요인 이외에,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 같은 내적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 연구에서도 첫째, 여성의 결혼의향은 남성의 결혼의향보다 낮으며 둘째, 여성 내부에서도 취업자와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은 미취업자와 4년제미만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으며, 셋째, 자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여성과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배분에 긍정적인 여성의 결혼의향은 남성의 결혼의향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결혼의향에 작용하는 요인의 젠더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김중백, 2012). 이에 대해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권의식의 고양에 힘입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경자, 2010).

3. 한국사회전망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전망요인은 결혼결정에 필요한 기초자원을 갖춘다는 의미인 경제적요인, 그리고 경제적요인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기울어진 자녀양육성역할분담과 결혼후에도 남녀 모두 자신의 자아성취욕구 등 자신의 생활스타일을 고수하려는 사회문화적 요인 외에,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가 실패에 대한 제기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노력만큼 보상받는 공정성 룰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인가 등 사회복지의 포용성수준에 대해 청년층들이 감지하여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포용성 수준에는 우리사회의 학위중심의 자원배분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학력을 향해 질주하도록 짜여진 교육시스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이동하면서 너무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따른 너무 다양해져 버린 임금수준과 직장복지보장수준의 간극 극대화, 너무 다양해지고 파편화되어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 경력인정이나 상향재취업이 어려워진 노동시장환경, 우리사회가 근면과 열정에 비례하여 보상이 돌아오는 정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된다.

한귀영(2015)은 ‘청년의 시선으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서 청년지표로 패자부활지수, 공정성지수, 협동지수, 사회참여역량지수, 세대연대지수, 세대자존감지수의 6가지를 설정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 19세-34세 1,500명 대상의 조사결과 패자부활지수는 28.8, 공정성지수는 20.6, 청년협동지수는 53.6, 사회참여역량지수는 64.3, 세대연대지수는 42.7, 청년자존감지수는 51.6으로 이 중에서 패자부활지수와 공정성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사회가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사회가 된 이유에는, 고졸과 대졸 간 임금격차가 크고 학력 사회/ 학벌사회를 지향하는 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회가 된 이유에는 고졸과 대졸간 임금격차에서 기인한다고 할수 있는데, 2016년 현재 교육정도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자의 경우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이 129: 151: 175: 238로(고용노동부, 2016) 고졸과 대졸 간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여자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이 77: 100: 118: 155로(고용부, 2016) 남성보다 낮은 가운데 격차유지경향은 거의 비슷하다. 남자의 고졸 vs 대졸 간 임금수준을 시간추이로 보면 1995년 159: 211 2000년 150: 212 2005년 145:217 2010년 154:235 2015년 153: 243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 151:238로 연도별 임금격차추이는 52(1995년) -> 62(2000년) -> 72(2005년) ->81(2010년) ->90(2015) ->87(2016)으로 2016년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이선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매우 부담’과 ‘부담스럽다’가 남자는 각각 26.5%, 37.9%로 64.4%가, 여자의 경우 각각 34.5%, 35.2%로 69.7%로 부부 중 교육관여가 더 많은 여자쪽이 보여주는 부담수치가 더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경쟁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실수나 실패했을 경우 제기가능성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 개인의 성장자원으로 연계되기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없을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불가능하다면 사회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성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중 19차 청년층부가조사자료이다. 청년층부가조사는 이제까지 3차, 9차, 19차의 3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나 여기서는 19차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요관심 변수인 연애& 결혼자신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전망변수가 19차에 처음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가. 표본의 특성

19차 노동패널의 전체표본수는 14,202명이나 이중 청년층부가조사대상은 3,225명으로 전체의

22.7%에 해당된다. 청년층부가조사의 연령범위는 첫 조사인 3차(2000년)에서는 15세-29세, 두 번째 조사인 9차(2006년)에서는 15세-35세, 가장 최근조사인 19차(2016년)에서는 15세-34세로 약간씩 조정되어 왔는데, 19차 자료를 사용하므로 조사대상의 연령범위는 15세~34세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청년 중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했다. 19차 부가조사의 전체표본은 3,225명이나 취업준비를 한 사례는 재학생이 제외된 총1,314사례로 청년층전체의 40.7%로 절반에 못미치는 사례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표 1>에서 표본의 특성을 보면, 먼저 인구학적으로는 남자 vs 여자가 46:54로 여자가 더 많다. 연령은 25세 이하 vs 26-34세가 22:78로 연령이 높은 구간이 3배 더 많다. 학력은 전문대 미만 vs 전문대이상인 18: 82로 전문대졸이상이 압도적이다. 취업여부는 취업 vs 비취업이 70:30으로 취업한 경우가 훨씬 많다. 부모와 동거여부는 동거 vs 비동거가 60:30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같이 사는 경우가 2배 더 많았다. 경제적 독립 vs 비독립은 60:30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보다 독립한 경우가 2배 더 많았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정도는 낮음 vs 높음이 30:70으로 자존감이 낮은 쪽보다 높은 경우가 2배 더 많았다.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낮음 vs 높음이 70:30으로 낮은 전망을 가진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혼자신감이 낮음 vs 높음은 51: 49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구성 및 특성

		n	%
성	남자	603	45.9
	여자	711	54.1
연령	15-25세	296	22.5
	26-34세	1018	77.5
교육수준	전문대 미만	230	17.5
	전문대 이상	1078	82.0
	무응답	6	0.5
취업여부	취업	924	70.3
	비취업	390	29.7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822	62.6
	비동거	492	37.4
경제적독립 여부	독립	818	62.3
	비독립	496	37.7
자존감	낮음	422	32.1
	높음	892	67.9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	낮음	880	67.0
	높음	434	33.0
결혼자신감	낮음	666	50.7
	높음	648	49.3
전체	계	1314	100.0

2. 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결혼자신감”(변수명은 ‘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하 결혼자신감으로 표기)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변수인 “성”, “연령”, “교육수준”과 결혼결정에 있어 경제적 기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변수로 “취업여부”, “부모와 동거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그리고 결혼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정을 가지겠다는 결정이나 부모가 되겠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자하는 “자존감”,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패자부활가능성, 청년대에게 보내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정도, 노력에 의한 부의 이전가능성 등 사회안전망수준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지닌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이다.

가.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결혼자신감”은 ‘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자신없다, 별로 자신없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평균은 3.44로 보

통과 어느정도 자신있다 사이를 보여준다. 점수가 3점 이하는 결혼자신감이 낮은 집단으로 4점 이상은 높은 집단으로 구분했다.

성은 남자와 여자, 학력은 대학(전문대포함)에 다닌 경험여부로 조사되어 전문대 미만과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15세~34세를 15세-25세, 26-34세의 두 구간으로 나누었다. 25세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교육수준을 전문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전문대 졸업후 군대와 취업에 소요되는 약간의 기간을 감안하여 25세 전후로 구분했다.

“취업여부”는 취업, 비취업으로 구분했다. “자아존중감”척도는 로젠버그(1965)가 개발한 10개 문항으로 된 4점 척도이나 이를 김문주(1988)가 번역하여 한국상황에 맞게 11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개발된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존감점수는 1.82~4.91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3.52(표준편차 .510)로 어느 정도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척도신뢰도 $\alpha=.812$ 로 높은 편이다.

“한국사회전망”변수는 한귀영(2015)이 청년층 인식조사에서 사용했던 변수 중 패자부활지수, 공정성지수, 청년자존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인지여부로 사용된 문항을 모두 합쳐서 ‘한국사회전망’으로 명명하고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 평균은 3.02이고 신뢰도는 .849로 높은 편이다.

하부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평균	표준 편차	척도
패자부활	1)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727	3.04	.896	평 균 =3.02(표 준 편 차 .6130) $\alpha=.849$
	2)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나은 계층으로 올라 갈 수 있다	.796	3.21	.896	
공정성	3)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807	2.93	.892	
	4)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659	3.31	.905	
세대연대	5)우리사회가 이 만큼 오기까지는 기성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컸다	.426	3.57	.749	
	6)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더 기회가 많다	.683	2.82	.948	
청년이 살만한나라	7)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708	2.74	.849	
	8)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다	.733	2.57	.886	

3. 연구방법

변수간 상관관계분석과 spss package 21을 가지고 이분항으로된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성별차이를 보기위해 성별과 취업여부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았다.

IV. 분석결과

1. 변수 간 관계

결혼자신감과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부모와 동거여부, 경제적독립여부, 자존감수준, 한국사회전망변수와 관계를 보면, 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결혼자신감은 연령적으로는 높은연령구간에서, 교육수준이 전문대이상인 경우, 취업을 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자존감이 높은 경우, 한국사회전망이 밝은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표 1> 결혼자신감과 인구학적 특성 및 관련변수 간 관계

	남자	여자	계	통계치
결혼자신감 낮음	316(47.4)	350(52.6)	666(100.0)	X ² =1.319 df=1 p<.268
결혼자신감 높음	287(44.3)	361(55.7)	648(100.0)	
전체	603(45.9)	711(54.1)	1314(100.0)	
	15세-25세	26세-34세	계	
결혼자신감 낮음	172(25.8)	494(74.2)	666(100.0)	X ² =8.423 df=1 p<.004
결혼자신감 높음	124(19.1)	524(80.9)	648(100.0)	
전체	296(22.5)	1018(77.5)	1314(100.0)	
	전문대 미만	전문대 이상	계	
결혼자신감 낮음	141(21.3)	520(78.7)	661(100.0)	X ² =12.948 df=1 p<.000
결혼자신감 높음	89(13.8)	558(86.2)	647(100.0)	
전체	230(17.6)	1078(82.4)	1308(100.0)	
	동거	비동거	계	
결혼자신감 낮음	461(69.2)	205(30.8)	666(100.0)	X ² =25.590 df=1 p<.000
결혼자신감 높음	361(55.7)	287(44.3)	648(100.0)	
전체	822(62.6)	492(37.4)	1314(100.0)	
	경제적 독립	경제적 비독립	계	
결혼자신감 낮음	340(51.1)	326(48.9)	666(100.0)	X ² =72.113 df=1 p<.000
결혼자신감 높음	478(73.8)	170(26.2)	648(100.0)	
전체	818(62.3)	496(37.7)	1314(100.0)	
	자존감 낮음	자존감 높음	계	
결혼자신감 낮음	124(18.6)	542(81.4)	666(100.0)	X ² =112.846 df=1 p<.000
결혼자신감 높음	298(46.0)	350(54.0)	648(100.0)	
전체	422(32.1)	892(67.9)	1314(100.0)	
	전망 어두움	전망 밝음	계	
결혼자신감 낮음	524(78.7)	142(21.3)	666(100.0)	X ² =83.685 df=1 p<.000
결혼자신감 높음	356(54.9)	292(45.1)	648(100.0)	
전체	880(67.0)	434(33.0)	1314(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9차조사.

표본: 19차(2016년) 1,314명 청년층 부가조사 개인.

2. 회귀분석 결과

모형1에서는 결혼자신감에 투입된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의 4개 변수 모두가 유의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자신감이 낮았다. 연령은 26-34세의 높은연령구간이 15-25세의 낮은 연령구간보다 결혼자신감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이 전문대 미만에 비해 결혼자신감

이 더 낮았다. 취업을 한 경우가 비취업보다 결혼자신감이 높았다. 모형1에서는 결혼자신감에 취업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연령이었다.

모형2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변수로 부모와 동거여부와 경제적 독립 여부를 추가한 것이다. 결혼자신감은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교육수준, 경제적 변인 중에는 취업여부와 경제적 독립여부가 유의했다. 즉 결혼자신감은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가 독립하지 못한 경우보다 높았고 취업을 한 경우가 비취업보다 높았다. 경제적 독립이 결혼자신감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16세-25세 구간보다는 26-34세 구간이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쪽이 낮은 쪽보다 결혼자신감이 더 낮았다.

모형3에서는 경제적 상황변인에 청년들의 개별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자아존중감변수, 그리고 패자부활, 공정성, 한국이 청년에게 살만한 나라인지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 한국사회전망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결혼자신감에는 교육수준,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자존감, 한국사회전망이 유의하였다. 이 중에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전망을 밝게 보는 경우가 어둡게 전망하는 경우에 비해 결혼자신감이 높았다.

<표2>의 모형4는 결혼자신감 분석모형에서 성별차이를 보기 위한 모형이다. 결혼자신감은 1단계 인구학적 변인과 취업여부별로만 보았을 때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 즉 남성의 결혼자신감이 여성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2단계에서 취업여부 외에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변수 즉 부모와 동거여부와 경제적 독립변수를 투입한 경우에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보다는 취업여부와 경제적 독립여부가 결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단계에서 가장 관심사인 자존감과 한국사회전망변수를 투입한 경우에는 성별보다는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자존감, 한국사회전망이 결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존감변수가 결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한국사회전망과 경제적 독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남성들은 취업과 경제적 요인이 결혼, 만혼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취업을 했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아 결혼의향에 성별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고 주장되고 있어, 현재 분석에서 처음에는 성별차이가 나타난 반면, 이후 단계에서는 성별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취업이 성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취업과 성별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표>를 보면, 성별차이의 대부분을 취업여부가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차이는 취업여부에 의한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자신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2> 결혼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283	.117	5.918	1	.015	.753
연령(1)	.294	.140	4.411	1	.036	1.342
교육수준(1)	-.471	.152	9.577	1	.002	.625
취업여부(1)	.535	.127	17.712	1	.000	1.708
상수	-.417	.151	7.639	1	.006	.659
model 2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152	.120	1.591	1	.207	0.859
연령2(1)	-.126	.155	.662	1	.416	.882
교육수준(1)	-.547	.155	12.406	1	.000	.579
취업여부(1)	.331	.134	6.142	1	.013	1.393
부모동거(1)	-.155	.135	1.308	1	.253	.857
경제적독립(1)	.881	.146	36.470	1	.000	2.414
상수	-.452	.293	4.957	1	.026	.636
model 3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131	.127	1.057	1	.304	.877
연령(1)	-.125	.164	.587	1	.444	.882
교육수준(1)	-.406	.165	6.023	1	.014	.667
취업여부(1)	.277	.141	3.835	1	.050	1.319
부모와동거(1)	-.194	.143	1.842	1	.175	.824
경제적독립(1)	.769	.154	24.906	1	.000	2.158
자존감(1)	1.089	.135	65.532	1	.000	2.971
한국사회전망(1)	.844	.132	40.905	1	.000	2.325
상수	-.969	.219	19.515	1	.266	.379
model 4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745	.276	7.264	1	.007	.475
연령(1)	-.132	.164	.646	1	.421	.877
교육수준(1)	-.426	.165	6.628	1	.010	.653
취업여부(1)	.038	.169	.050	1	.822	1.039
부모와동거(1)	-.172	.143	1.435	1	.231	.842
경제적독립(1)	.701	.156	20.143	1	.000	2.016
자존감(1)	1.096	.135	65.855	1	.000	2.993
한국사회전망(1)	.839	.132	40.346	1	.000	2.315
성별*취업여부	.794	.312	6.474		.011	2.212
상수	-.782	.230	11.543	1	.001	.457

나.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에서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로 4가지 모두 유의하였고, 여자보다 남자가 출산자신감이 낮았다. 15-25세 구간보다 26-34세 구간이, 전문대 미만보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이, 미취업에 비해 취업이 출산자신감이 높았다.

모형2에서 출산자신감은 성, 교육수준,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가 유의하였고, 여자보다 남자가 출산자신감이 낮았다. 전문대 미만에 비해 전문대 이상이, 미취업에 비해 취업이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 출산자신감이 높았다.

모형3에서 출산자신감은 교육수준, 경제적 독립여부, 자존감, 한국사회전망변수가 유의하였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이 경제적 독립을 한 쪽이, 한국사회전망이 밝다고 보는 쪽이 출산자신감이 높았다. 자존감수준이 낮은 쪽보다 높은 쪽의 출산자신감이 더 낮았다.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결혼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자존감과 한국사회전망이 미치는 영향과 방향성에 있다. 결혼자신감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경우와 한국사회전망을 밝게 보는 경우 결혼자신감에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출산자신감에서는 한국사회전망은 +방향의 영향을 자존감이 높은 경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 표3 >의 모형4는 출산자신감 분석모형에서 성별차이를 보기 위한 모형이다.

출산자신감에 성별차이를 보기위해 성과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았다.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교육수준, 경제적 독립, 자존감, 한국사회전망, 취업여부,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는 취업여부의 대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여기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출산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전망을 밝게 보는 청년들은 어둡게 보는 청년에 비해 출산자신감이 1.255배 높았다. 한국사회전망변수는 출산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3>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326	.116	7.671	1	.006	.722
연령(1)	.322	.144	5.024	1	.025	1.380
교육수준(1)	.360	.156	5.337	1	.021	1.434
취업여부(1)	.425	.130	10.742	1	.001	1.529
상수	-1.039	.187	30.910	1	.000	0.354
model 2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218	.121	3.247	1	.072	0.804
연령2(1)	-.028	.157	0.032	1	.859	.972
교육수준(1)	.419	.158	7.015	1	.008	1.521
취업여부(1)	.242	.136	3.170	1	.075	1.274
부모동거(1)	-.039	.134	0.084	1	.771	.962
경제적독립(1)	.809	.148	29.700	1	.000	2.245
상수	-1.230	.233	27.809	1	.000	.292
model 3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177	.129	1.883	1	.170	.838
연령(1)	.015	.168	.008	1	.930	1.015
교육수준(1)	.312	.170	3.359	1	.067	1.366
취업여부(1)	.150	.145	1.080	1	.299	1.162
부모와동거(1)	-.078	.143	0.297	1	.586	.925
경제적독립(1)	.687	.158	18.848	1	.000	1.988
자존감(1)	-.748	.131	32.424	1	.000	0.474
한국사회전망(1)	1.258	.130	93.418	1	.000	3.518
상수	-.965	.277	12.090	1	.001	.381
model 4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성(1)	-.855	.296	8.358	1	.004	.425
연령(1)	.008	.168	.002	1	.963	1.008
교육수준(1)	.332	.171	3.784	1	.052	1.393
취업여부(1)	-.091	.171	.281	1	.596	.913
부모와동거(1)	-.056	.144	.150	1	.698	.946
경제적독립(1)	.612	.161	14.534	1	.000	1.844
자존감(1)	-.753	.132	32.648	1	.000	.471
한국사회전망(1)	1.255	.130	92.491	1	.000	3.507
성별*취업여부	.859	.330	6.772		.009	2.360
상수	-.783	.285	7.545	1	.006	.457

다.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이 높은 집단의 구성

먼저, 두 집단 간 상관관계는 .566으로 출산력을 생각하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관이 있는 편이다. 이는 결혼자신감이 높으면 출산자신감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차 5개년계획에서 미혼과 만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타당성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 표4> 결혼자신감고저집단과 출산자신감 고저집단간 상관관계

	결혼자신감 고저집단	출산자신감 고저집단
결혼자신감 고저집단	1	
출산자신감 고저집단	.566	

n=1,344

< 표4> 에서 결혼자신감이 높은 집단의 구성을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부모동거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자존감, 한국사회전망으로 보면, 취업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 자존감과 한국사회전망을 보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변수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취업을 했거나 경제적 독립을 했다고 해서 자존감이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전망이 무조건 높거나 밝은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표 5>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이 높은 집단의 특성과 분포

	항목	결혼자신감	출산자신감	결혼&출산자신감
		높은집단 n(%)	높은 은집단 n(%)	높은집단 n(%)
성	남자	287(44.3)	236(43.1)	199(43.9)
	여자	361(55.7)	311(56.9)	254(56.1)
연령	15-25세	124(19.1)	103(18.8)	80(17.7)
	26-34세	524(80.9)	444(81.2)	373(82.3)
교육수준	전문대 미만	89(13.7)	77(14.1)	61(13.5)
	전문대 이상	558(86.1)	469(85.7)	391(86.3)
취업여부	취업	490(75.6)	410(75.0)	341(75.8)
	미취업	158(24.4)	137(25.0)	112(24.7)
부모와동거	동거	361(55.7)	309(56.5)	253(55.8)
	비동거	287(44.3)	238(43.5)	200(44.2)
경제적 독립	독립	478(73.8)	404(73.9)	338(74.6)
	비독립	170(26.2)	143(26.1)	115(25.4)
자아존중감	낮음	298(46.0)	248(45.3)	226(49.9)
	높음	350(54.0)	299(54.7)	227(50.1%)
한국사회전망	어두움	356(54.9)	266(48.6)	208(45.9)
	밝음	292(45.1)	281(51.4)	245(54.1)
출산자신감 (결혼자신감)	낮음	195(30.1)	94(17.2)	
	높음	453(69.9%)	453(82.8)	
전체		648(100.0)	547(100.0)	453(100.0)

V. 논의

본고에서는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사회전망요인의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미 연관성이 알려진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과 한국사회전망의 영향력을 보고자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3차년도 계획의 방향성 즉 저출산의 원인을 미혼과 만혼에 있다는 진단이 타당성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정책 중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이외에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 발견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취업여부와 경제적 독립변수로 나타나는 경제적 요인이외에 남녀 모두 자아존중감으로 표현되는 즉 결혼을 해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결혼과 출산을 병행해 나가려는 자아존중감변수와 패자부활가능성, 정당성, 청년에게 한국사회가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는 한국사회전망변수가 결혼자신감과 출산자신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용 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수준의 격차 증가로 미래 생활보장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패자가 되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활할 수 있는 포용적인 안전망, 부모세대의 지원이 없어도 개인이 노력하면 보상이 가능한 공정성률이 작동하여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놓여진 난제지만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문제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렵겠지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사회가 아이를 키울만한 여유를 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고졸과 대졸 간 임금격차가 크고 줄어들기는커녕 더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과 유명대학 중심의 출서기사회를 계속해 나간다면 청년들은 부모노릇하기를 점점 더 멈추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희. 2017. “저출산정책- 박근혜정부의 저출산 대책, 왜 실패했나”. 월간복지동향. 220. 2017. pp 5-11. 참여연대.
- 이상림. 2013 “혼인동향분석과 정책과제” 2013.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204호(2013-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pp1-32
- 한귀영. 2015. “청년의 시선으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심포지움 자료집.
- 고용노동부. 2016. “교육정도별 임금격차(성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6.5.24.,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대책의 주요내용 설명자료